

참고문헌

특집 | 문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미(美)

보수의 미학: '포스트전후' 일본 보수주의의 정치미학 | 장인성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비(b), 2009.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장인성,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일본비평』 창간호, 그린비, 2009.

장인성,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일본비평』 제6호, 그린비, 2012.

장인성, 「현대일본의 애국주의」, 『일어일문학연구』 제8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3.

장인성, 「고도대중사회 일본과 보수주의」, 『일본사상』 26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加藤典洋, 『敗戦後論』, 講談社, 1997.

橋川文三, 「日本保守主義の体験と思想」, 『橋川文三著作集』 6, 筑摩書房, 1986.

久野収・鶴見俊輔・藤田省三, 『戦後日本の思想』, 中央公論社, 1966.

大江健三郎, 『あいまいな日本の私』, 岩波書店, 1995.

大熊信行, 『国家悪－戦争責任は誰のものか』, 中央公論社, 1957.

西尾幹二, 『國家と謝罪』, 徳間書店, 2007.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文藝春秋, 1985.

西部邁, 『大衆の病理』, 日本放送出版協会, 1987.

西部邁, 『「成熟」とは何か』, 講談社, 1993.

西部邁, 『「国柄」の思想』, 徳間書店, 1997.

西部邁・中島岳志, 『保守問答』, 講談社, 2008.

西部邁, 『保守思想のための39章』, 中央公論新社, 2012.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 第7巻, 新潮社, 2001.

安倍能成, 「卒業式の辞」, 『心』 創刊号 1948年 7月號.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心』 1948年 10月號.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と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心』 1953年 4月號.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文藝春秋, 2006.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國へ 完全版』, 文藝春秋, 2013.

町村信孝, 『保守の論理－「凛」として美しい日本」をつくる』, PHP研究所, 2005.

林健太郎, 「現代における保守と自由と進歩」, 林健太郎 編, 『新保守主義』, 筑摩書房, 1963.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講談社, 1998.

佐伯啓思, 『國家についての考察』, 飛鳥新社, 2001.

佐伯啓思, 『成長經濟の終焉』, ダイヤモンド社, 2003.

佐伯啓思, 『自由とは何か』, 講談社, 2004.

佐伯啓思, 『日本の愛国心』, NTT出版, 2008.

中曾根康弘, 『新しい保守の論理』, 講談社, 1978.

中曾根康弘・佐藤誠三郎・村上泰亮・西部邁, 『共同研究「冷戦以後」』, 文藝春秋, 1992.

川端康成, 『美しい日本の私—その序説』, 講談社, 1969.

土屋道雄, 『福田恒存と戦後の時代—保守の精神とは何か』, 日本教文社, 1989.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小学館, 2001.

福田恒存, 『福田恒存全集』第2巻~第5巻, 文藝春秋, 1987.

丸山眞男, 「個人析出のさまざまなパターン」, マリウス B. ジャンセン 編, 『日本における近代化の問題』, 岩波書店, 1968.

Quinton, Anthony, *The Politics of Imperfection: The religious and secular traditions of conservative thought in England from Hooker to Oakeshott*, London & Boston: Faber and Faber, 1978.

메이지 일본의 '풍경' 발견: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1888~1890)를 중심으로 | 박삼헌

박삼헌,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박삼헌,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 소명출판, 2012.

박삼헌, 「메이지 초년의 전쟁과 프로파간다: 1874년 타이완(台湾) 침공 관련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李孝徳,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山本光正, 『江戸見物と東京観光』, 臨川書店, 2005.

勝原文夫, 『日本風景論序説 農の美学』, 論創社, 1979.

中村良夫, 『風景学入門』, 中公新書, 1982.

志賀重昂, 『新装版 日本風景論』, 講談社, 2014.

青木恒三郎, 『分邦詳密日本地図』, 青木高山堂, 1888.

荒山正彦 監修・解説, 『シリーズ明治・大正の旅行 第1期 旅行案内書集成』第3巻 内国旅行 日本名所 図会(1) 巻之一~巻之四, ゆまに書房, 2013.

荒山正彦 監修・解説, 『シリーズ明治・大正の旅行 第1期 旅行案内書集成』第4巻 内国旅行 日本名所 図会(2) 巻之五~巻之七, ゆまに書房, 2013.

일본적 미의 지층과 가와바타 야스나리 | 조정민

가라타니 고진,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金静熙, 「近代における源氏物語批評史: 天皇制と「もののあはれ」を中心に」, 『일본학연구』 제34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김태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와 민족주의: 18C 일본 '國'學 사상론의 구성 요인과 통합 원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5호, 2003.

남상욱,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일본비평』 제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니시카와 나가오,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박규태, 『일본정신의 풍경』, 한길사, 2009.

網野善彦, 『日本論の視座 列島の社会と国家』, 小学館, 1990.

大木ひさよ, 「川端康成とノーベル文学賞: スウェーデンアカデミー所蔵の選考資料をめぐる」, 『京都語文』 21, 2014.

大久保喬樹, 『日本文化論の系譜: 『武士道』から『「甘え」の構造』まで』, 中公新書, 2003.

大久保喬樹, 『ミネルヴァ日本評伝選 川端康成: 美しい日本の私』, ミネルヴァ書房, 2004.

柄谷行人 編, 『近代日本の批評 1 昭和篇(上)』, 講談社文芸文庫, 1997.

川端康成, 『川端康成全集』, 新潮社, 1982.

子安宣邦, 『漢字論: 不可避の他者』, 岩波書店, 2003.

坂口安吾, 『日本論』, 河出文庫, 1989.

李聖傑, 『川端康成の「魔界」に関する研究: その生成を中心に』, 早稲田大学博士学位申請論文, 2013.

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 | 조현정

丹下健三, 「近代建築の創造と日本建築の伝統」, 『新建築』 31号, 1956.

岡本太郎, 「縄文土器論」, 『みづえ』 558号, 1952.

岡本太郎, 『日本再発見 - 芸術風土記』, 新潮社, 1958.

岡本太郎, 『忘れられた日本 - 沖縄文化論』, 中央公論社, 1961.

白井晟一, 「縄文的なるもの - 江川氏旧葦山館について」, 『新建築』 31号, 1956.

平井敏晴, 『岡本太郎が愛した韓国』, 河出書房新社, 2004.

Brandt, Kim, *Kingdom of Beauty: Mingei and the Politics of Folk Art in Imperial Japa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7.

Nakamori, Yasufumi, *Katsura Picturing Modernism in Japanese Architecture: Photographs by Ishimoto Yasubir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Reynolds, Jonathan M., *Maekawa Kunio and the Emergence of Japanese Modernist Architectur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Reynolds, Jonathan M., *Allegories of Time and Space: Japanese Identity in Photography and Architecture*,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2015.

Tange Kenzō et al., *Katsura: Tradition and Creation in Japanese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Tange Kenzō et al., *Ise: Prototype of Japanese Archite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Wendelken, Cherie, "Aesthetics and Reconstruction: Japanese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1950s," Carola Hein and Jeffry M. Diefendorf eds., *Rebuilding Urban Japan After 1945*,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Winther-Tamaki, Bert, "To Put on a Big Face: The Globalist Stance of Okamoto Tarō's Tower of the Sun for the Japan World Exposition," *Review of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XXIII, 2011.

현대 '일본화'에 나타난 전통미의 재생과 동서의 융합: 마쓰이 후유키의 작업을 중심으로

| 최재혁

根津義明・松井冬子, 「今を語る-痛みを共有する絵を具現化する」, 『商工ジャーナル』 38卷 7号, 2012.

東京都現代美術館, 『MOT アニュアル NO BORDER-「日本画」から「日本画」へ』, 2006.

山本聡美, 「死への想像力-九相図がつなぐ, 過去と現在」, 『芸術新潮』 63卷 10号, 2012.

山本聡美・松井冬子, 「対談 松井冬子×山本聡美 描かれた“死”に探る中世絵画のテクニック」, 『芸術新潮』 63卷 10号, 2012.

松井冬子, 「speak low 黒い猫から白い犬へ 松井冬子 痛みを生みなおす筆先」, 『芸術新潮』 63卷 3号, 2012.

松井冬子, 「知覚神経としての視覚によって覚醒される痛覚の不可避」, 東京藝術大学博士論文, 2007.

松井みどり・松井冬子, 「松井冬子 インタビュー 恐怖や痛覚を糧とする芸術のかたち」, 『美術手帖』 60卷 903号, 2008.

松井冬子, 「松井冬子をつくった13冊」, 『美術手帖』 61卷 917号, 2009.

辻惟雄・松井冬子, 「奇想の対談 辻惟雄×松井冬子」, 『美術手帖』 60卷 903号, 2008.

「日本画」シンポジウム記録集編集委員会, 『日本画: 内と外のあいだで シンポジウム〈転位する「日本画」〉記録集』, ブリュッケ, 2004.

長谷川裕子, 「アブジェクトのもうひとつのかたちをもとめて」, 『美術手帖』 60卷 903号, 2008.

浦上満・松井冬子, 「古美術の世界へ: 対談 浦上満(浦上蒼穹堂)×松井冬子(日本画家)」, 『月刊美術』 39卷 5号, 2013.

布施英利, 「21世紀のモナリザ」, 『美術手帖』 60卷 903号, 2008.

연구논단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 | 김용철

김용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역사화 속의 국가주의」, 『한림일본학』 20, 2012. 5.

李京信, 「浅野晃の岡倉天心論」, 『比較文化研究』 92, 2008.

岡倉一雄 編, 『岡倉天心全集』, 聖文閣, 1935.

〈岡倉天心: 芸術教育の歩み〉展実行委員会 編, 『いま 岡倉天心を語る』, 東京藝術大学出版会, 2010.

岡倉天心全集刊行委員会, 『岡倉天心全集』 1~9, 平凡社, 1977~1983.

古田亮・吉田千鶴子・佐藤道信 編, 『岡倉天心-芸術教育の歩み』, 東京藝術大学岡倉天心展実行委員会, 2007.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 講談社文芸文庫Y1050, 講談社, 1997.

橋川文三 編, 『岡倉天心 人と思想』, 平凡社, 1982.

亀井勝一郎, 『我が精神の遍歴』, 日本図書センター, 1999.

宮川寅雄, 『岡倉天心』, 東京大学出版会, 1971.

内田弘 編, 『三木清東亜共同体論集』, こぶし書房, 2007.

林文夫, 「岡倉天心への批判」, 『芸術研究』 1, 1947. 1.

尾佐竹猛, 『明治文化の新研究』, 亜細亜書房, 1944.

東京芸術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 『東京芸術大学百年史 東京美術学校篇』 第3巻, ぎょうせい, 1997.

保田与重郎, 「岡倉天心のこと」, 『新日本』 1巻 2号, 1938. 2.

保田與重郎, 『保田與重郎全集』 5, 講談社, 1988.

杉浦明平, 『暗い夜の記憶に』, 風媒社, 1997.

小澤栄一, 「岡倉天心の歴史観」, 『歴史』 18巻 1号, 1943. 1.

神谷忠孝, 「浅野晃論」, 『国文学 解釈と鑑賞』 48巻 11号, 1983. 8.

斎藤隆三, 『日本美術院史』, 中央公論美術出版, 1974.

斎藤隆三他 編, 福原麟太郎 訳, 『天心先生欧文著書抄訳』, 日本美術院, 1922.

情報局, 『アジアは一つなり』, 印刷局, 1943.

佐藤信衛, 『岡倉天心』, 新潮社, 1944.

竹内好, 『アジア主義』, 現代日本思想大系 9, 筑摩書房, 1963.

中島岳志, 『アジア主義』, 潮出版社, 2014.

浅野晃, 「『東洋の理想』に就いて」, 『新日本』 1巻 2号, 1938. 2.

浅野晃, 『岡倉天心論考』, 思潮社, 1939.

浅野晃, 『日本精神史論攷』, 文明社, 1941 (『岡倉天心論攷改訂版』, 永田書房, 1989).

浅野晃, 『明治文学史考』, 万里閣, 1944.

清見陸郎, 『天心岡倉覚三』, 筑摩書房, 1945.

秋山謙蔵, 「歴史の推進と岡倉天心」, 『歴史』 18巻 1号, 1943. 1.

坪井隆彦, 『岡倉天心の思想探訪』, 勁草書房, 1998.

桶谷秀昭, 「浅野晃論」, 『国文学 解釈と鑑賞』 67巻 5号, 2002. 5.

河上徹太郎他, 『近代の超克』, 創元社, 1943.

Fletcher, Miles, 竹内洋・井上義和 訳, 『知識人とファシズム』, 柏書房, 2011.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 최정훈

나카에 초민,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삼척인정료문답』, 소명출판, 2005.

나카츠카 아키라, 박명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야마무로 신이치, 박동성 옮김, 『헌법 9조의 사상수맥』, 동북아역사재단, 2010.

家永三郎·外崎光広·松永昌三·川崎勝 編, 『植木枝盛全集』 第3~5巻, 岩波書店, 1990.

橋本佐内, 『啓發錄』, 山本忠輔 編, 山本忠輔, 1889.

大谷正, 『日清戦争』, 中央公論新社, 2014.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福澤諭吉全集 第四巻』, 岩波書店, 1970.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中島智教, 1888.

山本忠輔 編, 『福島中佐遠征紀要』 第1巻, 岡島真七, 1893.

山本忠輔 編, 『福島中佐遠征紀要』 第2巻, 岡島真七, 1893.

松岡傳一, 『『自由新聞』を読む: 自由党にとっての自由民権運動』, ユニテ, 1992.

松本三之介・松沢弘陽・溝口雄三・松永昌三・井田進也 編, 『中江兆民全集』 第11巻, 岩波書店, 1984.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 岩波書店, 1929.

『東京朝日新聞』

Ames, Roger T., *The Art of Rulership: A Study of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Sun-Tzu, Translated by Roger T. Ames, *The Art of Warfare*, New Yor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2010.

특집: 문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미(美)

보수의 미학: '포스트전후' 일본 보수주의의 정치미학 | 장인성

투고일자: 2015. 5. 31 | 심사완료일자: 2015. 6. 17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탈냉전기에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활발한 언론활동을 벌이면서 보수적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포스트전후를 지향하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사상과 미학을 니시베 스무(西部遼)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포스트냉전기 일본에서의 보수미학은 상식론, 질서론, 국가론에서 포착될 수 있다.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상식과 체함에 나타난 역설적 심리에서 낭만적 기분과 투쟁감각을 드러낸다. 그들은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평형감각을 보이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질서를 중시했을 때 평형감각은 붕괴된다. 이들의 평형감각과 질서관은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국가 표상을 강화하고 전쟁체험을 기억해내 국가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공동성의 미학으로 귀결된다.

전후체제의 종언을 꿈꾸는 보수주의자들의 역설, 균형, 공동성의 미학은 전후체제 형성기에 보수주의를 정초한 후쿠다 쓰네히라(福田恆存)에 건주어보면 상당히 이질적임이 드러난다. 사회과학적 비평을 하는 '포스트전후' 보수주의자들은 문예적 비평을 한 '전후'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개체적 실존보다는 전체적 실존을,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개별적 체험보다는 전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보수적 사유를 보인다. '포스트전후' 보수주의자들의 '포스트근대' 지향성은 일본 지식사회에서 문예적 교양이 크게 약해진 것과 관련된다.

주제어: 일본 보수주의, 전후체제, 포스트전후 의식, 니시베 스무, 사에키 게이시, 후쿠다 쓰네히라, 상식, 질서, 국가

메이지 일본의 '풍경' 발견: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1888~1890)를 중심으로 | 박삼헌

투고일자: 2015. 7. 6 | 심사완료일자: 2015. 7. 10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출판된 『일본명소』(전 7권)를 통해서 메이지시대에 '발견'된 일본 풍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명소』가 발견한 '일본'은 천황을 매개로 하는 풍경, 메이지시대의 국가 차원의 슬로건인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을 구현한 풍경, 새로 영토로 편입된 지역을 '일본' 속에 존재하는 타자로 시각화한 풍경이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훗날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과학적으로 '일본'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풍경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단순한 여행안내서가 아니라,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심상지리서였다.

주제어: 메이지, 풍경, 내셔널리즘, 여행, 시선

일본적 미의 지층과 가와바타 야스나리 | 조정민

투고일자: 2015. 5. 18 | 심사완료일자: 2015. 6. 7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68년의 일이다. 당시 가와바타는 스톡홀름의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 그 서설〉(美しい日本の私: その序説)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했는데, 이는 ‘아름다운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승인받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가와바타가 그토록 강조하던 ‘아름다운 일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패전 후의 가와바타는 여러 기회를 통해 ‘일본 미의 전통’이나 ‘옛 산하’, ‘고래(古來)의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천명한 바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패전 후의 상황을 봉합하고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직결시키기만 하면 전쟁에 관한 상처와 아픔을 봉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에는 패전에 관한 어떠한 역사적 경험도 각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고대 일본’을 패전 후의 상황에서 새롭게 전유할 수 있다면, 전쟁 기간은 공백으로 처리한 채 ‘일본’ 혹은 ‘일본 민족’, ‘일본의 전통’이라는 관념을 균열 없이 매끈하게 환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와바타는 서구 근대문학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고전 문학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고, 여기에 일본적 미의 근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와바타가 전후에 ‘일본적 미’에 관해 집착한 것은 전쟁, 혹은 패전에 대한 능동적인 망각과 재건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후 일본사회의 보수화라는 토양 위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징적인 권위와 가와바타의 화법이 더해져,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가상의 현실과 허구적 진실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와 더불어 가와바타의 미적 세계관이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수사 내지 통치 전략으로 폭넓게 원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국가라는 자장이나 세계화 국면 안에서 호출되었던 ‘아름다운 일본’은 여전히 감성적 공동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름다운 일본, 일본 회귀, 패전과 문학

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 | 조현정

투고일자: 2015. 6. 2 | 심사완료일자: 2015. 6. 15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본 연구는 1950년대 일본전통논쟁에서 유행했던 조몬으로 대표되는 원시적 열망에 대한 연구다. 전사시대 조몬 미학의 강렬한 원시성과 역동성은 섬세하고 나약한 일본 예술의 대안이자, 패전 이후 침체된 일본 문화를 쇄신할 활력으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들은 먼 과거의 조몬 전통을 소환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정당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전후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와 신화적 상상의 영역 사이에 놓인 조몬에 대한 이해는 발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위 미술가’ 오카모토 다로와 ‘국가 건축가’ 단게 겐조의 조몬론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통논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구라는 타자, 그리고 일본의 먼 과거라는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전후 일본의 예술생산 방식의 두 가지 모델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오카모토가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조몬적 원시성의 세계를 추구했다면, 단게는 조몬과 야요이의 중합을 통해 일본적이면서 동시에 모던한 전후 일본 건축의 국가적 양식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제어: 조몬, 야요이, 오카모토 다로, 단게 겐조, 일본전통논쟁

현대 ‘일본화’에 나타난 전통미의 재생과 동서의 융합: 마쓰이 후유크의 작업을 중심으로

| 최재혁

투고일자: 2015. 6. 1 | 심사완료일자: 2015. 6. 8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보수적인 일본 화단에서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마쓰이 후유크의 작업을 통해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인 ‘일본화’가 현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마쓰이는 비단에 물기를 많이 머금어 넓게 채색하고 담묵의 선묘로 섬세하게 윤곽을 표현하는 고전적인 견본착색 기법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기법은 자신의 테마인 고통, 광기, 트라우마와 같은 정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령과 시체가 부패해가는 모습을 담은 전통적인 유령화와 구상도 등의 소재를 참조하면서도 그 속에 동시대적 양상이나 서양미술, 서양미술학과 관련된 개념을 담아내어 현대적으로 변안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서양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메이지 시기에 성립된 ‘일본화’는 서양미술과 절충하는 화혼양재의 방법론을 취했다. 마쓰이가 현재 평단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마쓰이는 일본화의 기법적인 측면에 대한 천착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는 동시대의 상황이나 페미니즘을 비롯한 현대 사상, 서양현대미술의 작가와 작품의 사례까지 적극 수용하는 이른바 ‘화재양혼’(和材洋魂)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마쓰이 후유크는 이종혼교성과 인위성을 태생적으로 지닌 ‘일본화’라는 장르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또한 ‘새로운 일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 ‘고투’했던 근대기의 기억을 현재적 시점에서 향수하게끔 하는 역할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마쓰이 후유크, 일본화, 전통, 유령화

연구논단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 | 김용철

투고일자: 2015. 6. 10 | 심사완료일자: 2015. 6. 22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에서는 오카쿠라 덴신을 재조명하면서, 그의 저서 『동양의 이상』의 첫 문장 “아시아는 하나다”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선각자, 예언자로 추앙받은 그의 사상은 침략적 아시아주의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동양의 이상』, 『일본의 각성』과 함께 영문원고를 책으로 간행한 『동양의 각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전투적 아시아주의 혹은 침략적 아시아주의를 내포한 『동양의 각성』은 원래 덴신이 인도 체류 당시 자신의 비분강개를 반영한 원고다. 이 원고는 인도 여행의 기념품으로도 평가받지만, 덴신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이는 덴신 자신도 출판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의 이상』은 일본의 정체성과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각성』은 메이지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다. 동시대의 침략적 아시아주의 혹은 전투적 아시아주의는 『동양의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일·태평양전쟁기 덴신이 선각자로 추앙받은 것은 그가 생전에 남긴 업적 자체보다는 침략적 아시아주의로 치달은 시대의 요구가 투영된 측면이 더 크다.

주제어: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중일·태평양전쟁기, 아시아주의, 동양의 이상, 동양의 각성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 최정훈

투고일자: 2015. 6. 24 | 심사완료일자: 2015. 7. 1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한 야마모토 주스케의 『일본군비론』에서 군비확장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야마모토의 글은 군비확장론에 반대했던 우에키 에모리와 나카에 조민의 담론과의 비교 속에서 분석될 것이다. 야마모토는 두 사람과 정책론적 결론은 달리하지만, 이들과 주된 전제는 공유했다. 이들은 전쟁이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쟁 혹은 상비군의 폐지라는 유토피아주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단, 야마모토는 영토적 통합성과 인민의 생명력을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우에키와 달랐다. 또, 야마모토는 군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세(勢)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조민과 같았지만,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세의 내용을 조민과 달리 해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1880년대 민간의 군비담론이 정부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론 공간에서 생겨났으며, 이 공간에서 저자들은 적의 논변과 선택적으로 접속·단절됨으로써 자신의 담론을 구성해나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제어: 야마모토 주스케, 일본군비론, 우에키 에모리, 나카에 조민, 후쿠자와 유키치

JAPANESE BEAUTY AS CULTURAL IDEOLOGY

The Aesthetics of Conservatism in “Post-postwar” Japanese Intellectuals

| JANG In Su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apanese conservatives have propagated their conservative opinion through proactive media activiti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traits of the post-Cold War Japanese conservatism by examining the political aesthetics of Nishibe Susumu (1939~) and Saeki Keishi (1949~), who negate Japan’s postwar system and envision the emergence of the “post-postwar” Japanese society. Grasping their political aesthetics could be accomplished by recognizing their conservative understanding of common sense, social order, and nation-state.

In negating Japan’s postwar system, Nishibe and Saeki reveal their romantic feelings and combative spirit, particularly when they discern the Japanese society’s paradoxical situation that is caused by the disjunction between Japanese people’s experience and common sense. Despite their emphasis on the equilibrium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such perspective collapses when they regard social order more highly than individual liberty. Their conceptualization is actually weakened by its own rigid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communal state, redefined by reassessing the meaning of tradition, history, and consciousness—that they endeavor to elevate by recalling Japanese people’s patriotism in past wars.

Aspiring to terminate Japan’s postwar system, their view of paradox, equilibrium and communality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Fukuda Tsuneari (1912~1994), a famous conservative literary critic who ardently published his conservative opinion in postwar Japan. “Post-postwar” conservatives, mostly social scientist critics, prefer communal life to individual existence, social order to individual freedom, and national experience to personal life. This perspective differs from the attitude of “postwar” conservatives, represented by literary critics. The “post-postwar” conservatives’ effort to overcome modernity seems to be correlated to the weakening of literary criticism in the Japanese intellectual society.

• **Keywords:** Japanese conservatism, Japan’s postwar system, post-postwar consciousness, Nishibe Susumu, Saeki Keishi, Fukuda Tsuneari, common sense, social order, communal state

A Discovery of Japan's "Landscapes" in the Meiji Era: Focusing on the *Illustrated Guide Book for Travelers around Japan* | PARK Sam Hu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Japan's landscapes in the *Illustrated Guide Book for Travelers around Japan* (total 7 volumes), published from 1888 to 1890 in the Meiji Period. The examined landscapes include the landscapes using the emperor as a vehicle, landscapes visualizing the Meiji government's national slogans such as th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policies and its industrialization initiative, and other landscapes illustrating newly added areas as the other within Japan. These landscapes set precedence to those in the *Shiga's Japanese Landscape*, which views the Japanese landscape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Illustrated Guide Book for Travelers around Japa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imple travel guidebook but as an imagined geography of modern Japan, building a cornerstone to understand and accept "Japan" discovered in the *Shiga's Japanese Landscape*.

• **Keywords:** Meiji, landscape, nationalism, travel, sight

The Japanese Beauty Stratum and Kawabata Yasunari | CHO Jung Min

Kawabata Yasunari, the first Japanese to be awarded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received the award in 1969. On the occasion, he delivered a commemorative speech *Japan, the Beautiful and Myself: An Introduction* (美しい日本の私-その序説) at the Swedish Academy, which was a groundbreaking event that achieved the recognition of "beautiful Japan" worldwide.

What is the "beautiful Japan" that Kawabata underlined to such a great extent? After Japan's defeat in the World War II, he proclaimed to return to the "tradition of Japanese beauty," "old mountains and streams," and "ancient Japan" at every occasion. It was a kind of measure available to stitch up and settle the situation after the defeat, in that postwar scars and pains could be patched up as far as a direct link could be built between the "ancient Japan" and "present Japan." The experience of losing wars was not imprinted on the "ancient Japan." Accordingly, if the "ancient Japan" that remained a "pure and beautiful time" could be wholly and newly obtained in such a postwar situation, the concept including "Japan," "Japanese race," and "Japanese tradition" could be seamlessly resurrected, leaving the war period vacant. On this account, Kawabata highly appreciated the classical literature that is distant from the modern Western literature and emphasized the classical literature's inherent essence of Japanese beauty. In this context, it may be that Kawabata's adherence to the "Japanese beauty" after the defeat was an act of active forgetting and reconstructing in relation to the war or defeat.

Meanwhile, it is an undeniable truth that the virtual reality and fictional truth in the "beautiful Japan" were gradually pervading the postwar conversation, as Kawabata's symbolic authority and narrative were introduced. In addition, it is notable that Kawabata's aesthetic worldview is widely cited in today's Japanese society as a political rhetoric or ruling strategy. Once invoked in the contexts of globalization or nation-state, the "beautiful Japan" still actively constitutes an emotional community.

• **Keywords:** Kawabata Yasunari, *Japan, the Beautiful and Myself*, Japan's return, war defeat and literature

About Things Jōmonesque: The Japan Tradition Debate and the Problem of the Other | CHO Hyun Jung

This study examines the 1950s Japan tradition debate and its interest in the primitive Jōmon period. The powerful and primitive aesthetics of Jōmon artifacts provided leading Japanese artists and architects with a vitality with which to renew the depressed Japanese culture in the wake of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However, understanding of Jōmon varied according to different needs of each advocate. A comparison between Okamoto Tarō's and Tange Kenzō's view of Jōmon would be particularly illuminating in offering two competing models of postwar Japan's cultural identity in a global context. While avant-garde artist Okamoto Tarō favored the populist Jōmon over the aristocratic Yayoi, architect Tange Kenzō advocated the synthesis of Jōmon and Yayoi. If Okamoto's enthusiastic embrace of Jōmon led him to pursue the universal primitivism shared by Japan's ancient past art and the world art, Tange's reinterpretation of Okamoto's Jōmon theory encouraged Tange to formulate an authentic national identity of postwar architecture that is both modern and uniquely Japanese.

• **Keywords:** Jōmon, Yayoi, Okamoto Tarō, Tange Kenzō, Japan tradition debate

The Revival of Traditional Beauty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East and West in Matsui Fuyuko's Contemporary "Nihonga" Works | CHOI Jae Hyuk

This paper examines how Matsui Fuyuko adapted the traditional techniques of "Nihonga," Japanese-style painting, in a contemporary realm of art. Since the term "Nihonga" was coined in the modern era, its art world is considered to be deeply rooted in a conservative way of thinking. It postulates a binary of the East and West that is unopposed, demanding Nihonga painters to implicitly perceive its inherent difference. However, Matsui nullifies such division, rather embracing the multifarious facets of the art's current development that has enabled artists to express their subject matters through methods of re-appropriation. In this respect, she successfully accomplishes her artistic objectives—to render human sufferings, madness, and traumas—by reintroducing and integrating both the technical and contextual elements of Nihonga on a picture plane in an unprecedented way. Taking into account her strategic approaches, she could be regarded as a critical inheritor of the genre, who asks provoking questions while succeeding the antecedents of Nihonga.

• **Keywords:** Matsui Fuyuko, Nihonga, tradition, supernatural painting

ARTICLES

A Reevaluation of Okakura Tenshin in the Second Sino-Japanese and Pacific War Era | KIM Yong Cheol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and Pacific War, Okakura Tenshin was reevaluated in Japan. His thought served as the basis of the aggressive, militant Asianism and provided the first sentence of *The Ideals of the East*, hence “Asia is one” as the slogan. In this process, the Japanese translation of *The Awakening of the East* seems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Ideals of the East* and *The Awakening of Japan*. At first, *The Awakening of the East* was written during his stay in India. It reflects his sorrowful indignation and was not published in his lifetime, implying his intention to keep it unpublished. *The Ideals of the East* seems to be in relation to Japan’s identity and its past, *The Awakening of Japan* to Japan’s situation since the Meiji period, and *The Awakening of the East* to militant Asianism. Tenshin was reassessed and came to be revered as the pioneer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due to the needs of the time rather than his achievement itself.

• **Keywords:** Okakura Tenshin, Second Sino-Japanese and Pacific War, *The Ideals of the East*, *The Awakening of the East*, Asianism

A Study on the Discursive Fields of War in the late 1880s: With an Emphasis on A Discourse on Japanese Armament | CHOI Jeong Hun

This paper examines the way Yamamoto Chūsuke justified the expansion of armaments in his *A Discourse on Japanese Armament (Nihon gunbiron)*, a political pamphlet hitherto nearly neglected by the academic field. His work will be analyzed in comparison to the discourses of Ueki Emori and Nakae Chōmin, well-known opponents of the military expansion. Despite their differences, Yamamoto shared major assumptions with his potential opponents. The consensus was that wars could not be justified by themselves, and that the abolition of wars or standing armies as a utopian scheme should be supported in principle. In his justification of war, Yamamoto was distinguished from Ueki in that h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territorial integrity and rejuvenation of people’s vitality. Yamamoto also differentiated himself from Chōmin, when he analyzed the contemporary *Sei/Ikioi* filled with dangers of a war, albeit sharing Chōmin’s pessimistic attitude towards the abolition of armies in his times. This examination implies that non-governmental discourses on arms and wars in the 1880s developed from their distinct discursive fields, in which each writer constructed his own discourse by selective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with those of opponents.

• **Keywords:** Yamamoto Chūsuke, *A Discourse on Japanese Armament (Nihon gunbiron)*, Ueki Emori, Nakae Chōmin, Fukuzawa Yukichi

『일본비평』 14호 특집에 관하여

『일본비평』 편집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5일 발간 예정인 제14호에서 “동아시아 속의 재일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를 넘어서”(가제/책임편집: 신기영·유혁수)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국인의 일본 이주 역사 100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70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주화와 세계화를 함께 이루어온 재일 코리안에 대해, 기존의 이론적 틀을 넘어 새로운 시점의 연구가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첫째로는 다양화된 그들의 사회·경제상황을 되돌아보고, 둘째, 구성원이 다양화·복잡화되어 나타난 새로운 정체성을 고찰하며, 셋째, 분단 조국을 둔 소수민족이라는 재일 코리안이라는 특수성이 제시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공생적 미래를 위한 이론적 가능성을 조명하려 합니다. 즉 동아시아 주류 인식론인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생모델로서, 동아시아 미래상에 공헌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현실적·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입니다.

원고의 마감은 2015년 10월 30일이며 소정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유주제에 의한 연구논단의 투고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40동 403호 / Tel: (02)880-8503 / e-mail: ilbi-ijs@hotmail.com

투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국내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본관련 연구자.
2. **내용:**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로서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
3. **종류:** 저술물의 종류는 일본연구에 관한 논문, 서평, 특별기고, 기타로 한다. 논문은 특집논문과 자유투고논문으로 구분한다. 특집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평은 특집주제를 보완하는 성격의 '주제서평'과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한 '신간서평'으로 구분한다. 특별기고는 편집위원회가 특집논문과 별도로 집필을 의뢰한 학술적 성격을 갖는 저술물을 가리킨다.
4. **분량:**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0매 내외로 한다. 서평의 경우 주제서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80매 내외, 신간서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특별기고와 기타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5. **원고작성:** 『일본비평』의 원고작성은 본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 원고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제출:** 원고는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7. **투고마감:** 특집의 경우 해당호의 발행 3개월 전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특집 이외 자유투고의 경우 투고와 심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8. **수정의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9. **심사비:**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편집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원고료:** 채택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11.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귀속된다.

